

박인로의 <노계가>에 나타난 강호 인식의 양상과 그 의미

최현재*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강호가사의 시대적 변모와 <노계가>의 강호 인식 양상
- III. 재지사족의 현실적 대응과 <노계가>의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박인로의 <노계가>가 17세기 강호가사의 흐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노계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실상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그 성과 역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몰락 향반’이라는 작가 박인로를 향한 예외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이 온전한 작품 이해의 걸림돌로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노계가>를 올바르게 조명하고 해석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강호시가에 대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대별 강호가사의 특징적 변모를 간추려서 소개하였다. 이에 바탕을 두고서 강호 인식의 측면에서 <노계가>를 17세기 강호가사 작품들과 비교하여 그 동질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노계가>를 포함한 17세기 강호가사 작품들은 강호를 생활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리학적으로와 심신수양을 표상하는 이념적 공간의 16세기 강호가사와는 변별된다. 또한 강호 인식의 근저에 남다른 자부심과 성취감이 자리잡고 있으며, 취흥과 풍류, 힘차고 역동적

*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기운, 호기로운 목소리 등 감정의 자유로운 표출이 이러한 자부심과 성취감에 촉발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공통점도 확인하였다.

이처럼 <노계가>가 17세기의 다른 강호가사 작품들과 차별적이지 않은 것은, 박인로 역시 당시 일반적인 재지사족들처럼 가문의 위상과 정체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박인로의 경제적 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뿐만 아니라 시대에 대응하는 그의 행적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그러므로 17세기 재지사족의 현실적 대응이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동향 안에 박인로의 행적과 작품들도 위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박인로, <노계가>, 재지사족, 강호가사, 17세기

I. 서론

국문학의 초창기에 조운제의 연구로 촉발된 조선시대 강호시가¹⁾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강호시가가 조선시대에 지속적으로 창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작가층인 사대부의 미의식과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장르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운제²⁾가 강호시조 형성의 정치적 배경, 주제, 미적 원리 등을 살펴 강호시조 연구의 기본적 관점을 제공하였다면, 그 뒤를 이어 작가층의 행적 및 세계관과 결부하여 작품에

1) ‘강호시가’는 자연을 작품의 중심 소재로 하여 창작된 국문시가 일반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연구자에 따라 ‘자연시가’, ‘자연 소재 시가’, ‘산수시’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자연’의 고전적 용어로 ‘강호’가 두루 쓰였다는 사실과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강호시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강호시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하위 장르를 가리킬 때는 ‘강호시조’나 ‘전가시조’, ‘강호가사’ 등의 용어를 쓰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영주, 『강호가사에 형상화된 산수풍경과 생활풍정』, 『한국시가연구』 10, 한국시가학회, 2001, pp.304-305 참조.

2) 조운제, 『한국시가사강(개정판)』, 을유문화사, 1954.

구현된 사상적·미학적 성취를 탐색한 최진원, 이민홍, 손오규³⁾ 등은 강호 시조 연구를 체계화·정밀화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렇지만 이들의 연구는 강호시조에 국한한 채 공시적 관점에서 강호시조를 단일하게 파악한 결과 시대에 따른 다양한 변화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한계도 지닌다.

이에 대한 극복은 강호시조에 동적인 시간상을 부여함으로써 강호시조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추구한 김홍규의 논의들⁴⁾에서 시도되었다. 개별 작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위상에 따라 강호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치밀하게 논증한 그의 연구는 이후의 강호시조 연구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16세기 강호시조와 변별되는 17세기 전가시조의 특징과 의의를 다룬 후대의 연구들⁵⁾에 끼친 영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강호시가 연구가 시조 장르에 중점을 두었지만 그 성과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강호가사는 최근에 와서야 연구자들이 관심을 표명할 정도로 초보적 단계를 겨우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정재호를 위시한 일군의 연구들⁶⁾을 통해 개략적이나

3)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7; 최진원,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증보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6; 이민홍, 『사림과 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5; 이민홍, 『조선 중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출판부, 1993;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출판부, 2000;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출판부, 2006.

4) 김홍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 김홍규, 『어부사시사에 서의 '흥'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2; 김홍규, 『16·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육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5) 대표적으로 권순희, 『전가시조의 미적 특질과 사적 전개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0;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권순희, 『당쟁기 불안한 “사”의 실존과 전가시조』,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이형대, 『<오대어부가>와 처사적 삶의 내면 풍경』,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신영명, 『17세기 강호시조에 나타난 ‘전원’과 ‘전가’의 형상』,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등을 들 수 있다.

마 조선시대 강호가사의 전반적 면모와 특징을 확인할 수는 있다. 비록 강호시조에 접근하는 통시적 관점의 틀을 일부 원용하여 강호가사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강호가사 연구의 독자성이 다소 퇴색되긴 하였지만, 시대별 작가층의 분화와 이에 따른 강호가사 작품들의 대비적 특징과 편차를 뚜렷이 파악할 수 있다.

박인로(1561~1642)의 <노계가> 역시 강호가사 연구의 일환으로 몇 차례 다루어져 작품의 성격 규정이나 문학사적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시각이나 해석상 관점의 차이로 인해 작품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공간구성이나 생활양태 서술의 측면에서 16세기와 17세기 강호가사의 장르적 차이를 논하면서 <노계가>를 17세기 재지사족의 강호가사에 포함시켜 비중있게 다루거나,⁷⁾ 송순의 <면양정가>처럼 天理의 구현체로 자연을 인식하는 ‘누정계 가사’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노계가>를 거론하기도 한다.⁸⁾ 이와 달리 박인로를 향반으로 규정하여 <노계가>를 포함한 박인로의 작품

6) 정재호, 『강호가사소고』,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2; 윤덕진, 『강호가사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88; 임주탁, 『강호가사의 내면세계와 역사적 전개과정』, 『공사는 문집』 31, 공군사관학교, 1992; 안혜진, 『강호가사의 변모 과정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8; 김명준, 『16·17세기 강호가사의 변모 양상』, 『어문논집』 41, 안암어문학회, 2000; 김용철, 『박인로 강호가사의 강호구성과 화자』,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김용철, 『17세기 자연농시가의 성립과 특성』,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박연호, 『장르론적 측면에서 본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 『가사문학 장르론』, 다운샘, 2003; 김석희, 『17세기 자연시가의 양상과 그 역사적 성격』,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

7) 박연호, 앞의 논문, 2003. 박인로의 강호가사 작품들을 자연농인 재지사족의 입장에서 접근한 김용철의 논의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용철, 『<누항사>의 자연농 형상과 17세기 자연농 시가의 성립』, 『한국가사문학연구』(정재호 편저), 태학사, 1996; 김용철, 『『사제곡』의 강호구성 원리와 철학적 기반』, 『어문논집』 40, 안암어문학회, 1999; 김용철, 앞의 논문, 2002.

8) 안혜진, 앞의 논문, pp.99-112.

들을 한미한 처지에 놓인 사족이 선택한 위안의 수사학으로 해석하거나,⁹⁾ 빈곤한 삶에도 불구하고 강호가도적 동경과 갈망을 관습적이고 마니에리즘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¹⁰⁾

원론적으로 말해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시각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문학사적으로 크게 주목받는 작품일수록 그것은 더욱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계가>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간극이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7세기 재지사족의 강호가사에서 <노계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박인로라는 작가뿐만 아니라 강호가사의 흐름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가사의 변천을 다룰 때면 으레 박인로에 주목하여 궁핍한 실상과 躬耕의 형상이 사실적으로 잘 드러난 <누항사>를 흔히 거론하였다. 그러다 보니 <노계가>는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이렇다 할 만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계가>가 단순히 박인로의 말년을 장식한 마지막 가사 작품이라는 의미만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는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의 시가사적 전환기에 박인로라는 한 재지사족의 인생 역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가 일생 동안 쉽없이 창작한 가사 작품들의 궁극적 귀결점이라는 의미도 내재되어 있다.¹¹⁾

9) 우용순, 「박인로의 “안빈낙도”의식과 자연」,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한창훈, 「17세기 향반계층과 시가의 강호 인식」,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10) 김석희, 앞의 논문, pp.232-238. 또한 손대현, 「노계 박인로의 경제적 기반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시가연구』 29, 한국시가학회, 2010에서도 박인로를 궁핍한 향반으로 규정하여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17세기 재지사족의 강호가사라는 측면에서 <노계가>에 접근할 것이다. 우선 작품에 나타난 강호 인식을 다른 강호가사 작품들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당시 재지사족의 현실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박인로를 임병 양란이라는 격변기에 유별난 행적을 드러내 보인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당시 재지사족이라는 집단이 지닌 행위와 의식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인물로 규정하여 자세히 다룰 것이다. 박인로가 17세기 재지사족 집단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위와 의식을 대동소이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며, 따라서 <노계가>는 임란 후 재지사족의 현실 대응의 결과물로서 강호가사의 전형적 특징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 본고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17세기 재지사족의 ‘집단적 보편성’을 박인로의 <노계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Ⅱ. 강호가사의 시대적 변모와 <노계가>의 강호 인식 양상

1. 시대별 강호가사의 특징적 변모

시대에 따른 강호가사의 변모 양상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적절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굳이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핵

11) 인본주의적 지리학의 장소성이라는 개념으로 박인로의 가사 작품들을 살펴본 최근의 논의(줄고, 『노계가사에 나타난 장소성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34, 한국시가학회, 2013)에 의하더라도 <노계가>의 존재가치와 의미는 잘 드러난다. 그의 가사 작품들에 나타난 장소들은 독립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속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가 실존적 내부성의 장소를 획득하는 데 발전적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과정의 최종 단계에 위치한 <노계가>는, 강렬한 장소애를 통해 작가의 실존과 정체성이 회복됨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심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은, <노계가>에 나타난 강호 인식의 양상을 논의하는 데 실마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16세기 사화기의 강호시가는 ‘이분법적 세계상’, ‘세속예의 대립 의식’, ‘전범적 자연관’, ‘감흥의 절제’, ‘탈생활적 관조성’ 등의 전형적 특징을 보이다가 16세기 말~17세기 전반에 이르러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된다. 곧 사대부 세계의 정치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전형적 특징들이 상당한 약화·동요를 보인다는 것이다.¹²⁾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무엇보다 강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사화기에 “강호는 天人, 性命의 이치를 탐구하고 至治의 이상을 키우는 이념적 수양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주축으로 詩化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6세기 말~17세기 전반을 거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심미적 충족·해방과 드높은 흥취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좀더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¹³⁾을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된 강호 인식의 실체를 감지할 수 있다. 농가와 전원에서의 생활 노동이라는 모티프, 酒興과 醉樂의 모티프 등이 작품에 등장하게 된 것도 강호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가시조뿐만 아니라 17세기 강호가사에서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이다. 몇몇 작품들을 통해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바 아희들아 西疇에 일이 있다
 짜부 호미 다 제곱 ㄴ저스라
 갈거니 지거니 數畝를 ㄴ춘 후에
 傾筐을 드러메고 뒷민희 올라가니

12) 김홍규, 앞의 논문, 1999, pp.173-183.

13) 위의 논문, p.195.

어린 취 못다 크고 薇蕨이 채 슬것다
 격으며 다으며 바구리 못다 차서
 峰頭에 올라 안자 采薇歌를 기리 내여
 響徹雲霄에 胸中이 洒落하니
 風乎舞雩 1 돌 이에서 더홀런가
 저근덧 훗거러 蝸室의 도라오니
 稚子는 侯門이요 새 술은 니거 잇다
 一盃復一盃 마신 後에 낫싯대 빗기 들고
 苔磯를 츠자가니 밋기 업슨 낙시에 고기마다 다 몬느다
 魚鳥도 뿔줄 바다 다 疑心 아니하니
 美哉洋洋은 晝夜를 쉬잔거늘
 臨流賦詩하고 登臯舒嘯하야
 日復日日에 山水로 消日하니
 山水之樂을 날밋의 뉘 아논고 (〈수남방웅가〉)¹⁴⁾

박인로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정훈(1563~1640)의 <수남방웅가>에는 농사일을 독려하며 미나리를 직접 캐고, 취흥에 흠뻑 젖은 채 낚싯대를 드리우는 등 전원에서 생활 노동에 몰입하는 화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采薇歌’나 ‘風乎舞雩’, ‘臨流賦詩’처럼 전대 강호시가의 관습적이고 관념적인 시어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전가에서의 소박하지만 구체적인 삶을 향유하며 醉樂의 흥취를 放逸하게 누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상춘곡>이나 <면양정가>처럼 전대의 강호가사 작품에도 흥겨운 강호생활이 보이지만, 실제 생활의 현장이 아니라 규범적이고 관념적인 사대부의 관습적 풍류라는 점에서 <수남방웅가>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¹⁵⁾

14) 앞으로 작품 인용은 줄저, 『조선 전기 사대부가사』, 문학동네, 2012의 ‘원문주석본’을 따른다.

15) <수남방웅가>에 대해서는 권순희, 「17세기 남원지방 재지사족의 동향과 정훈의 시

湖天 봄빛치 斗柄 조차 도라오니
 陽坡 7는 풀이 새음이 프르렀고
 沙汀 弱혼 버들 넷 가지 누울 저기
 江城 느즌 빗발 긴 들호로 건너오니
 淸爽 혼 더 景槩 詩興도 돕거니와
 藥圃 山田을 흥매면 가리로다
 이마 아히들아 쇼 조히 머겨스라

(중략)

朝暮애 잠긴 안개 브라보니 奇異 ㅎ다
 몇 번 時雨 되야 歲功을 일웠는다
 오동 넙히 디고 흰 이슬 서리 되니
 西潭 김픈 골애 秋色이 느껴 있다
 千林 錦葉이 二月花를 브놀소나
 東嶽 두던 밧긔 크나큰 너븐 들히
 萬頃 黃雲이 혼빛치 되야 있다
 重陽이 거의로다 내노리 흥자스라
 불근 괴 여물고 높은 둑기 슬져시니
 술이 니글선정 버디야 업술소나

(〈월선헌십육경가〉)

오랜 관료생활을 역임한 신계영(1577~1669)이 만년인 1655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서 지은 <월선헌십육경가>이다. 평생 관직에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훈과는 신분상 차이가 나지만, 이 작품도 <수남방옹가>와 마찬가지로 17세기 강호가사의 특징적 면모를 잘 보여준다. 봄을 맞아 경치와 詩興에 젖어들기도 하지만, 이내 농업을 편면

가, 『어문논집』 39, 안암어문학회, 1999, pp.217-218; 류숙영, 『정훈 문학의 현실적 토대와 작가의식』, 『국어국문학』 35,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98, pp.151-152; 이승남, 『17세기 강호가사의 전환기적 서정』, 『우리어문연구』 28, 우리어문학회, 2007, pp.210-211 참조.

하고 누렇게 잘 익은 가을 들녘을 바라보며 붉은 게와 누런 닭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는 모습은 구체적이면서도 생활에 밀착된 전가생활의 형상 바로 그것이다.¹⁶⁾

이외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7세기 강호가사 작품들에서 구체적인 전가생활의 현장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¹⁷⁾ 박인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노계가>를 중심으로 한 그의 강호가사 작품들을 통해 이러한 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노계가>에 나타난 강호 인식의 양상

荊棘을 헤쳐 드러 草屋數間 지어 두고
鶴髮을 되지고 終孝를 하려 너겨
爰居爰處 하니 此江山之 임재로다
三公不換此江山을 오늘스 아라고야
[나는 말업시 수이도 밋고완자
恒産도 보려 하니 힘음 업시 잇노애라]
어즈러운 鷗鷺와 數업슨 麋鹿을
내 혼자 거느려 六畜을 삼아거든
갑업슨 淸風明月은 절노 己物 되야시니
넉과 다른 富貴는 이 혼 몸애 ㄱ자꼬야

16) <월선헌십육경가>에 대해서는 박연호, 앞의 논문, 2003, p.114 참조.

17) 김득연(1555~1637)은 전원생활의 구체적인 모습과 흥취를 주로 시조를 통해 그려내고 있지만, 강호가사 <지수정가>를 통해서도 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조우인(1561~1625)의 <매호별곡>에서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전원생활과 관련된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김득연에 대해서는 이상원, 『16세기 말~17세기 초 사회동향과 김득연의 시조』, 『어문논집』 31, 고려대 국어국문학회, 1992, pp.153-160; 김홍규, 앞의 논문, 1999, pp.189-190을 참조할 수 있으며, 조우인에 대해서는 박연호, 앞의 논문, 2003, pp.111-113을 참조할 수 있다.

(중략)

힘세이 다토면 내 분에 올가마는
 禁히리 업술식 나도 두고 즐기노라
 ㅎ물며 南山 느린 굿희 五穀을 가초 심거
 먹고 못 남아도 굿지나 아니ㅎ면
 내 집의 내 밥이 그 맛시 엇더ㅎ뇨
 採山釣水 ㅎ니 水陸品도 잠깐 긋다 (〈사제곡〉)¹⁸⁾

<노계가> 이전에 지어진 <누항사>나 <사제곡>에도 전가생활의 구체적 모습과 흥취가 드러나 있는데, 이를 통해 전가생활에 대한 박인로의 관심이 일찍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란 이후 피폐한 현실에서 궁핍을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躬耕稼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누항사>가 농가와 전원에서의 생활 노동이라는 모티프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궁핍과 궁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전가생활과 그로 인한 흥취가 작품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전가생활에 대해 작가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증이 될 것이다.

이덕형을 대신하여 창작한 <사제곡>에도 이러한 점은 나타나는데, 위에 인용한 대목이 특히 그러하다. 가시덤불을 헤쳐 초가집을 짓고서 스스로 오곡을 심어 자족적인 삶을 도모하려는 모습은 중앙 관직에서 물러난 이덕형보다는 전가생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박인로에 더 가깝다. 특히 “恒産도 보려 ㅎ니”라는 구절을 통해 修身과 함께 治産의 문제도 중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¹⁹⁾ 안빈낙도와 충효라는 성리학적 이념이 여전히 작

18) <사제곡>의 원문은 목판본 『蘆溪先生文集』을 따르되, 고사본에만 있는 구절은 []로 표시하였다.

품 전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긴 하지만, 恒産이라는 경제적 문제와 함께 자족적 존립기반을 갖춘 전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그 틈새로 뚜렷이 솟구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박인로가 만년에 지은 <노계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 역시 전가생활에 대한 평소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되어 있기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湖山 形勝은 건줄 더 녀야 업니
 巢許도 아닌 몸애 어니 節義 알리마는
 偶然時來예 이 名區 임지 되여
 靑山流水와 明月淸風도 말업시 절로절로
 어즈러운 鷗鷺와 數업슨 麋鹿도 갑업시 절로절로
 沮溺 가던 묵은 밧과 嚴子陵의 釣臺도 갑업시 절로절로
 山中百物이 다 절로 已物되니
 子陵이 돌이오 沮溺이 서히로다 (〈노계가〉)

늘그막이지만 蘆溪에 卜居하여 낚시하고 농사지으며 자족적인 삶을 살게 된 기쁨과 자부심을 자릉, 장저, 걸익처럼 밭갈이나 낚시로 소일하던 고대 중국의 은사에 빗대어 표출하고 있는 대목이다. 낚시와 밭갈이로 얻은 식량이 비록 풍족하진 않지만 전가생활을 영위하는 데 흠족하다는 만족

19) 이상원은 노동의 윤리를 강조하는 이휘일의 <전가팔곡>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서, 현실 정치권으로부터 장기간 소외된 채 독자적 길을 고수해 온 영남학파가 17세기에 접어들면 수신의 문제보다 치산의 문제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이상원, 『17세기 시가사의 시각』,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pp.268-269). 이휘일과 박인로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사제곡>의 ‘恒産’ 관련 구절이 당시 영남지역의 분위기와 전혀 동떨어진 데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즉 17세기라는 시대성과 영남지역이라는 지역성이 박인로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감에 더하여, 자신의 소유인 ‘己物’이 된 山中百物에 대한 애착과 뿌듯함은 앞서 인용한 <사제곡>의 구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제곡>에서 꿈꾸던 전가생활이 <노계가>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가생활에 대한 그의 관심과 노력이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名區’로 지칭한 ‘湖山 形勝’의 실체적 의미가, 16세기 강호시가에 흔히 나타나듯이 혼탁한 정치현실의 대척점으로 성리학적 도와 심신수양을 표상하는 이념적 공간과는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계가>의 ‘名區’가 자족적 존립기반을 갖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17세기의 다른 강호가사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생활의 터전으로 인식된 강호는 노동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가 영위되는 곳이기에 단순한 名勝地나 이념적 수양의 공간과는 구별된다. 이것이야말로 <노계가>의 ‘名區’가 지닌 의미의 실체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노계가>에 나타난 박인로의 강호 인식이 동시대 강호가사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때, 여기서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러한 강호 인식의 근저에 남다른 자부심과 성취감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赤鼠三春에 春服을 새로 입고
 竹杖芒鞋로 蘆溪 김흔 골의 형허 마참 차즈오니
 第一江山이 남지 업시 브려느다
 古往今來에 幽人 處士들이 만히도 잇것마는
 天慳地秘하야 누를 주랴 남겨뒀다 (〈노계가〉)

‘赤鼠三春’, 곧 병자년인 1636년의 봄에 蘆溪를 찾아와 복거하게 된 심회를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뚜렷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을 오로지 자신만이 그 진가를 간파하고서 경영하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유감없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古往今來에 幽人 處士들이 만히도 잇것마는” 오로지 자신만이 ‘第一江山’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은 단순히 노계에 은거하게 된 기쁨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성취감은 다른 아닌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은거지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자신만이 그곳을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天慳地秘호야 누를 주라 남겨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사리 띄지 않는 비밀스러운 곳을 자신이 알아보고서 개척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山中百物이 다 절로 己物되니”와 “名區 임지” 등의 표현을 통해서서는 그곳이 자신만의 독점적 소유물이라는 것을 표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자부심과 성취감은, 다음에 인용한 대목에서 보듯이 도도한 취흥과 풍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희 불너 하느 말슴 이 深山窮谷에 海錯이야 보로소나
 살진 고사리 香氣호 當歸草를 猪脯鹿脯 相間호야
 크나큰 細柳筍에 洽足히 다마 두고
 鮓魚膾 初味에 訥魚生雉 서거 구어 빗빳치 드리거든
 瓦樽에 白酒를 박잔의 가득 부어
 혼 잔 또 혼 잔 醉토록 먹은 後에
 桃花는 紅雨되야 醉面에 썰리논디
 苔磯 너른 돌에 눕히 베고 누어시니
 無懷氏 적 사름인가 葛天氏 썩 百姓인가
 義皇盛時를 다시 본가 너기로라 (<노계가>)

아이 불러 호사스러운 정도의 안주를 차려놓게 하고서 막걸리 마시며

취흥을 즐기는 화자는 박인로의 다른 작품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채롭게 다가온다.²⁰⁾ 다른 작품들에서는 호탕한 풍류와 도도한 취흥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작가가, 말년에 비로소 성취한 노계 복거 앞에서는 자신의 심회를 거침낌없이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다른 17세기 강호가사 작품들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김득연의 <지수정가>에서는 “十年을 經營호여 흥 싸흘 어드니”라고 하여 복거할 곳을 획득하는 데 기울인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千古에 荒廢地을 아모도 모르더니/一朝에 眞面目을 내 호온자 아란노라”라는 구절을 통해 오로지 자신만이 그곳의 진면목을 간파하였다는 작가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조우인의 <매호별곡>에서는 “明時에 ㅼ린 몸이 物外에 누어더니/갑 업슨 風月과 임지 업슨 江山을/造物이 許賜호야 날을 맞겨 ㅼ리시니/니라 스양호며 닛토리 닛 이시리”라는 구절을 통해, 정훈의 <수남방웅가>에서는 “溪山이 넘재 업서 雲水間의 ㅼ렸거닐/荊茅를 헤혀고 數間을 얻거민니”라는 구절을 통해, 윤이후의 <일민가>에서는 “아마도 이 江山은 걸린 고디 바히 업서/멧히를 無主호야 내 손의 도라오니/하늘이 주신 작가 人力으로 어들소냐”라는 구절을 통해 <노계가>와 마찬가지로 卜居地 획득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²¹⁾

이러한 자부심·성취감과 함께 이들 작품들에서는 <노계가>의 화자와

20) <노계가>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줄저, 『조선 중기 재지사족의 현실인식과 시가 문학』, 선인, 2006, pp.171-176 참조.

21) <노계가>를 포함한 17세기 강호가사 작품들에 나타난 자부심의 표출에 대해서는 박연호, 앞의 논문, 2003, p.112에서 간명하게 지적한 바 있는데, 본고는 이에서 시사받은 것이 적지 않음을 밝힌다.

흡사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수정가>에서는 노년에 접어든 작가의 작품이라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차고 역동적인 기운을 쏟아내는 화자²²⁾와 대면하게 되고, <수남방옹가>에서는 “山水之樂을 날 밧피 뉘 아논고”라며 호기로운 목소리를 내뿜는 화자²³⁾와 마주치게 된다. 다른 강호가사 작품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물론 자신의 노력으로 복거지를 획득하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에서 촉발된 것이다.

이처럼 <노계가>를 포함한 17세기 강호가사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卜居地를 경영하게 된 자부심과 성취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러한 자부심과 성취감에서 촉발된 취흥과 풍류, 힘차고 역동적인 기운, 호기로운 목소리 등 절제되지 않은 감정의 자유로운 표출도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시대적 경향이나 작가의 행적과 같은 작품 외적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계가>를 17세기 강호가사와 비교해 보면, 강호 인식의 측면에서 <노계가> 역시 17세기 강호가사의 특징적 면모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7세기 강호가사의 일반적 범주에서 <노계가>를 굳이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Ⅲ. 재지사족의 현실적 대응과 <노계가>의 의미

<노계가>에 나타난 강호가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터전이자 노동의 대

22) 김창원, 「김득연의 국문시가의 역사적 위상」,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p.138.

23) 강경호, 「정훈 시가에 반영된 현실 인식과 문학적 형상 재고」,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2006, pp.223-224.

상으로서의 구체적인 공간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17세기 강호가사의 변화상을 <노계가> 역시 거의 그대로 담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17세기 강호가사처럼 <노계가> 역시 이러한 공간을 자신의 노력으로 경영하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표출되어 있으며, 도도한 취흥과 호탕한 풍류가 이러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바탕으로 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특징을 지닌 <노계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17세기의 변화된 정치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재지사족의 일반적 동향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재지사족의 ‘일반적’ 동향이란 것은 박인로 역시 이 시기 재지사족의 일반적 노선을 그대로 밟아나간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곧 17세기 사족의 분화 과정에서 재지사족이 자신의 정체성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촌사회에서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을 이 시기의 강호가사 작품들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는데, 박인로의 <노계가>도 이러한 시대적·계층적 속성에 상당히 부합하는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17세기 재지사족의 현실적 대응이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의 측면에서 <노계가>를 해석하기 이전에, 먼저 박인로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고의 서술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적·경제적 처지에 대해 잠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⁴⁾

박인로를 몰락 향반으로 규정짓고서 이에 맞춰 그의 행적과 작품들을 해석하려는 시각은, 박인로의 경제적 처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제대로 전하

24) 박인로의 기본적인 사회적·경제적 처지에 대해서는 줄재, 앞의 책, 2006, pp.30-47에서 이미 상론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를 참조하기 바람, 미처 논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만 본고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지 않는 현 상황에서 <누항사>를 위시한 몇몇 작품들과 관련 자료들에 언급된 궁핍상을 작가의 현실적 처지로 환원하여 이해한 데서 비롯된 바가 크다. 더구나 향반은 18세기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역사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몰락 향반의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한 기존 견해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경우²⁵⁾와 <누항사>를 시대 현실에 대해 우의적으로 비판한 작품으로 보는 견해²⁶⁾를 아울러 고려한다면, 박인로를 몰락 향반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²⁷⁾ 게다가 박인로가 역임한 조라포 만호가 비록 무관직이지만 결코 미관말직의 하찮은 벼슬이 아니라 품계만으로도 군수와 동급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연구²⁸⁾와 더불어, 박인로의 경제적 상황을 좀 더 분명히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²⁹⁾를 덧붙인다면, 박인로를 어느 정도의 사회적·경제적 위상

25) 신영명, 「전기시조인가, 자영농시가인가?」, 『우리어문연구』 20, 우리어문학회, 2003, p.160; 신영명, 「시골로 내려온 서울,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 『시조학논총』 26, 한국시조학회, 2007, p.78. 향반에 대해서는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 한길사, 1998, pp.570-571 참조.

26) 박연호, 「<누항사>의 우의성과 그 의미」, 『개신어문연구』 28, 개신어문학, 2008. 또한 박연호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누항사>를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사족으로서의 직분과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작품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박연호,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과 ‘우환’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64, 한민족어문학회, 2013 참조.

27) 박인로 개인뿐만 아니라 임란 이후의 사회 전반이 극도로 피폐하고 악화된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박인로를 조명한 최상은, 「노계가사의 창작기반과 문학적 지향」,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은 몰락 향반이라는 단선적 시각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8) 조라포 만호의 품계와 위상에 대해서는 줄져, 앞의 책, 2004, p.39에서 간략히 언급하였으며, 이종문, 「노계 박인로 문학의 창작 공간과 유적 관련 몇 가지 탐색」,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pp.194-196에서 몇가지 자료를 더 보충하여 자세히 논증하였다.

29) 이종문, 「노계 <영남가>의 찬양 대상 인물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59, 민족어문학회, 2009, p.300에서 이 자료를 박인로와 이덕형의 교유관계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을 지닌 재지사족으로 규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특히 후자의 새로운 자료는 박인로의 교유관계를 살피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의 경제적 상황과도 직결된 것이기에 다시 거론하기로 한다.

愚谷 李惟侃(1550~1634)의 『愚谷日記』 중에 ‘丁巳日課’에는 “12월 초 이렛날 날씨가 맑았다. 박인로가 楊根으로부터 서울로 들어오면서 술을 빗을 쌀과 만두 만들 쌀을 보내주었다(十二月 初七日 晴. 朴仁老 自楊根入京 送酒米曼頭米).”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서 주목할 것은 박인로가 술을 빗을 쌀과 만두 만들 쌀을 이유간이라는 인물에게 보냈다는 점과 박인로가 고향 영천을 떠나 지금의 경기도 양평인 楊根을 거쳐 다시 서울로 들어가는 긴 여정의 여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당시 박인로의 경제적 상황을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

먼저 술을 빗고 만두를 만들 쌀을 박인로가 이유간에게 보냈다는 것은 당시에 박인로의 경제적 상황이 결코 몰락한 향반으로 궁핍한 정도는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박인로가 생전에 극진히 따르던 이덕형의 별장이 양근의 莎堤에 있었기에 이덕형이 죽은 뒤에도 그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丁巳年인 1617년에 박인로가 그곳을 찾았을 가능성³⁰⁾을 감안한다면, 12월 7일에 이유간에게 보낸 쌀이 박인로가 아니라 이덕형의 집안에서 나온 것으로 혹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록의 맥락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러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러한 가능성에 따른다면 쌀을 보낸 주체가 박인로가 아닌 이덕형 집안의 누구로 명시되어야 할 터인데, 실제 기록에는 박인로가 주체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술을 빗고 만두를 만들 쌀을 이유간에게 보낼 정도로 당시 박인로는

30) 이러한 가능성은 위의 논문, p.300에서 제기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결코 궁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계다가 박인로가 영천에서 양근으로, 다시 서울로 이어지는 장거리 여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정을 더욱 신뢰하게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박인로는 평소에 장현광·정구·이덕형 등을 從遊하느라 여행을 많이 다녔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본인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할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¹⁾ 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박인로를 궁핍한 몰락 향반으로 규정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인로를 극도의 궁핍상을 보인 몰락 향반이 아니라 17세기 재지사족의 엄연한 일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가 아닐까 한다.

임란 이후의 17세기는 흔히 봉당정치의 시대라 할 정도로 사족의 분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정치현실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족의 움직임은 크게 출사 지향과 처사 지향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전자는 사족의 분화라는 정쟁의 와중에도 정국의 주도권을 주도하기 위해 16세기 사림정치의 노선을 어느 정도 이어가려고 한 在京官人의 경향이라 한다면, 후자는 정쟁에서 패퇴하여 중앙정계에서 소외되자 불가피하게 낙향할 수밖에 없었던 在地士族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사족은 재경관인이든 재지사족이든 모두 향촌사회에 사회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17세기 봉당정치를 거치면서 이러한 분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출사의 길이 좁아진 재지사족은 향촌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뿐만 아니라 가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성리학적 소양을 닦는 데 전력을 기울이거나 아니면 향촌사회에서의 경제적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식으로 구체화된다. 결국 재지사족은 사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향촌사회에서 자신들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

31) 김용철, 앞의 논문, 1996, p.253.

해 ‘성리학적 소양과 ‘경제적 부’라는 두 가지에 심혈을 기울인 셈이다.³²⁾ 다시 말해 재지사족이 향촌사회에서 기반을 다지게 된 데에는 차별적인 물질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경제력과 함께 유교적 윤리의 실천을 바탕으로 일종의 명망가 지배를 구현한 것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³³⁾

박인로의 행적 또한 이 시기 재지사족의 일반적 동향과 상당히 잘 부합하는 점이 있다. 임란 때 의병으로 활동하였으며, 그후 사족들을 위로하고 포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 ‘廣取武科’를 통해 벼슬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巨儒·顯官들과 종유하면서 성리학에 심취하고 유교적 윤리를 몸소 실천하였다는 사실들은, 비록 대단한 명성을 이루진 못했다 하더라도 박인로 역시 재지사족으로서의 입지와 가문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³⁴⁾

특히 박인로는 이름 있는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영천 지역의 유력 사족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박인로가 속한 밀양 박씨는 고조 박영손 대까지는 대사헌과 장악원정을 역임하는 등 현달한 문사의 가문이었으나 그 이후로 출사하지 못하고 영천으로 옮겨온다. 그후 밀양 박씨 가문이 조선 후기 영천 지역의 대성반이로 성장하기까지 박인로와 그의 후손이 기울인 노력은 상당한

32) 16·17세기의 정치현실 변화에 대해서는 이병휴, 『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0; 이태진, 『조선 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1990; 정진영, 『조선 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 구조 연구』, 일조각, 1997 등을 참조할 수 있으며, 신영명, 『17세기 강호시조에 나타난 ‘전원’과 ‘전가’의 형상』,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pp.287-289에 간명하게 정리한 것을 본고에서는 주로 활용하였다.

33) 물론 본인이나 그 조상이 관직에 있었다는 것도 향촌사회에서의 명망 유지에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필동, 『차별과 연대』, 문학과지성사, 1999, pp.40-42; 오영교,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 혜안, 2001, p.59 참조.

3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저, 앞의 책, 2004, pp.30-47 참조.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유력 인물을 배출하며 영천의 향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일 정씨나 창녕 조씨 집안의 인물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밀양 박씨의 세력 강화에 유난히 관심을 기울인 흔적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인로의 사후에 그 후손들이 박인로를 모시는 도계 서원을 포함하여 3개의 서원을 설립하였다는 점, 밀양 박씨 가문에서 유력 인물들이 상당수 배출되었다는 점, 근대의 읍지에 밀양 박씨가 영천의 대성반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이후 가문의 위치가 상당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박인로가 당대의 거유·현관들뿐만 아니라 영천 지역 유력 시족들과의 교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당시 재지사족의 동향에 발맞춰 가문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⁵⁾ 따라서 박인로의 작품들에서 성리학적 이념이나 유교적 윤리를 표명하는 구절들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재지사족의 위상 강화를 위해 펼친 박인로의 실제적 노력과 결부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힘이 뉘 힘고 聖恩이 아니신가
 江湖애 물너신들 憂君一念이야 어니 刻애 이줄논고
 時時로 머리 드러 北辰을 바라보고
 늙 모르는 눈물을 天一方의 디이느다
 一生애 품은 뜻을 비옵느다 하느님아
 山平海渴토록 우리 聖主 萬歲소셔
 熙皞世界에 三代日月 빛취소셔
 於千萬年에 兵革을 쉬오소셔
 耕田鑿井에 擊壤歌를 불리소셔

35) 가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박인로와 그 후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김용철, 앞의 논문, 1996, pp.272-273 참조.

이 몸은 이 江山風月에 늘글 주를 모르로라 (〈노계가〉)

늘그막에 노계 복거를 이루어낸 기쁨과 자부심을 내내 읊조리다가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노계가> 역시 聖恩에 과분할 정도로 감사하고 태평성대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 있다. 언뜻 생각하면 시상 전개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박인로가 보인 재지사족으로서의 행적에 비춰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노계가>의 결말을 통해 당시 밀양 박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또 영천 지역의 재지사족으로서 위상과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박인로가 기울인 노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박인로는 영천 지역에서의 재지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제력 확충에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재지사족의 재산 증식은 혼인, 상속과 분배, 친척의 受贈을 통해서나, 복거와 개간에 의해 家舍와 전답을 확보하고 이러한 자산의 기반 위에서 매득하거나 증식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³⁶⁾ 그렇지만 이 당시 재지사족은 邑治의 외곽 촌락 또는 부근의 任內 지역이나 인근 타읍의 외곽지대로 卜居하거나 이주하면서 지역개발을 추진한 것이 일반적이었다.³⁷⁾ 이것은 임란 이후 國家再造 方案의 일환으로 별인 정책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임란 이후 농경지의 황폐화와 인구의 遊離·감소라는 인적·물적 토대의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되는데, 그 방안으로 陳田과 新田 개간, 대대적인 감세·면세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적으로 일반 농민보다 재지사족의 토지집적을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17세기 재지사족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개간하고 토

36)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pp.44-109.

37) 정진영, 「16, 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민족문화논총』 10,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p.91.

지를 집적함으로써 향촌의 지배세력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굳힌다.³⁸⁾

이러한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박인로의 노계 복거는 경제적인 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은거도 아니며, 몰락 향반의 정신적 위안이나 관습적이고 마니에리즘적인 동경과 갈망과도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단순히 토지 집적이라는 경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촌사회에서 재지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飛禽走獸는 六畜이 되얏거늘
달 알이 꺾기 낙고 구름 속의 밧홀 가라
먹고 못 나마도 그칠 적은 업노왜라
無盡은 江山과 許多은 閑田은 分給子孫 ㅎ려이와
明月淸風은 논ㅎ듀기 어려울시
才與不才에 養志는 아들 ㅎ아
太白 淵明 證筆에 永永別給 ㅎ렷로라
내의 이 말이 迂闊은 듯 ㅎ것마는
爲子孫計는 다만인가 너기로라
또 어린 이 몸은 仁者도 아니오 智者도 아니로디
山水에 癖이 이러 늘글스록 더욱 ㅎ니
저 貴은 三公과 이 江山을 밧골소나 (〈노계가〉)

평생동안 가문의 위상을 드높이고 재지사족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한 박인로가 늙어서야 비로소 그 결실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된 소회를 밝힌 대목이다.三公이라는 귀중한 벼슬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노계 복거는 일생을 걸고서 일구어 온 결과물이며, 그곳에서 고기 낚고 밭을 갈면서 풍족하진 않지만 소박하게 사는 삶은 곧 재지사족으로서 박인로가 획득한

38) 송양섭, 『조선시대 관권과 사족, 타협과 충돌』, 『역사비평』 65, 한국역사학회, 2003, p.69.

경제적 기반과 연결된다. 특히 ‘爲子孫計’라고 밝힌 “無盡호 江山과 許多호 閑田은 分給子孫 호려이와/明月淸風은 논호듀기 어려울식”라는 구절에서 자손에게 물려줄 허다한 ‘閑田’은 다름 아닌 陳田을 말함인데, 그렇다면 이 구절은 ‘陳田 개간’이라는 당시 재지사족의 일반적인 재산 증식 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노계가>는 17세기 영천 지역에서 재지사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한 평생의 노력이 투영된 강호가사 작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한 작품 이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재지사족의 현실적 대응이라는 일반적 동향에 박인로라는 한 개인의 생애를 결부하지 않으면 작품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노계가>가 아닌가 한다. <노계가>가 다른 강호가사 작품들과 공유하고 있는 자부심과 만족감의 표출은, 개별 작가들의 차원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재지사족 일반의 차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³⁹⁾

IV. 결론

강호가사 연구에서 박인로의 <노계가>가 차지하는 위상과 의의는 결코 낮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의 시가사적 전환기의 첫머리에서 <노계가>가 강호가사의 새로운 경향을 견인한 의의가 자못

39) 재지사족은 공동의 이익을 축으로 하여 공론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공론을 바탕으로 향촌지배가 이루어졌다는 견해(정진영, 앞의 논문, 1989, pp.104-105), 관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향촌사회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재지사족의 ‘居鄉觀’이 개인의 이해나 화를 면하자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김인걸,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거향관’ 변화』, 『역사와 현실』 11, 한국역사연구회, 1994, p.161) 등도 참조할 만하다.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노계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실상에 부합하지 못하였으며 그 성과 역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중세의 관념적인 시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근대적 정후를 농후하게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 <누항사>의 그늘에 가려진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몰락 향반’이라는 작가 박인로를 향한 예외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이 온전한 작품 이해의 걸림돌로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노계가>를 올바르게 조명하고 해석하기 위한 작업을 본고에서 행한 셈인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에서는 강호시가에 대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참조하여 시대별 강호가사의 특징적 면모를 간추려서 소개하였다. 이에 바탕을 두고서 강호 인식의 측면에서 <노계가>를 17세기 강호가사 작품들과 비교하여 그 동질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노계가>를 포함한 17세기 강호가사 작품들은 강호를 생활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리학적 도와 심신수양을 표상하는 이념적 공간의 16세기 강호가사와는 변별된다. 또한 강호 인식의 근저에 남다른 자부심과 성취감이 자리잡고 있으며, 취흥과 풍류, 힘차고 역동적 기운, 호기로운 목소리 등 감정의 자유로운 표출이 이러한 자부심과 성취감에 촉발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공통점도 확인하였다.

이처럼 <노계가>가 17세기의 다른 강호가사 작품들과 차별적이지 않은 것은, 박인로 역시 당시 일반적인 재지사족들처럼 가문의 위상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계가>를 몰락 향반의 정신적 위안이나 관습적이고 마니에리즘적인 동경과 갈망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천의 향촌사회에서 재지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피땀이 어린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박인로의 경제적 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뿐만 아니라 시대에 대응하는 그의 행적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그러므로 17세기 재지사족의 현실

적 대응이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동향 안에 박인로의 행적과 작품들도 위치하고 있음을 본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셈이다.

【참고문헌】

1. 논문

- 강경호, 「정훈 시가에 반영된 현실 인식과 문학적 형상 재고」, 『한민족어문학』 49, 한민족어문학회, 2006, pp.223-224.
- 권순희, 「17세기 남원지방 재지사족의 동향과 정훈의 시가」, 『어문논집』 39, 안암어문학회, 1999, pp.217-218.
- , 「전가시조의 미적 특질과 사적 전개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0.
- , 「당쟁기 불안한 “사”의 실존과 전가시조」,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 김명준, 「16·17세기 강호가사의 변모 양상」, 『어문논집』 41, 안암어문학회, 2000.
- 김석희, 「17세기 자연시가의 양상과 그 역사적 성격」, 『조선후기 시가 연구』, 월인, 2003.
- 김용철, 「〈누항사〉의 자영농 형상과 17세기 자영농 시가의 성립」, 『한국가사문학연구』(정재호 편저), 태학사, 1996.
- , 「〈사제곡〉의 강호구성 원리와 철학적 기반」, 『어문논집』 40, 안암어문학회, 1999.
- , 「17세기 자영농시가의 성립과 특성」,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 , 「박인로 강호가사의 강호구성과 화자」,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 김인걸,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居鄕觀’ 변화」, 『역사와 현실』 11, 한국역사연구회, 1994, p.161.
- 김창원, 「김득연의 국문시가의 역사적 위상」,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p.138.
- 김필동, 『차별과 연대』, 문학과지성사, 1999, pp.40-42.
- 김홍규, 「강호자연과 정치현실」,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
- , 「어부사시사에서의 ‘흥’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2.
- , 「16·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육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 류숙영, 「정훈 문학의 현실적 토대와 작가의식」, 『국어국문학』 35,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98, pp.151-152.

- 박연호, 『장르론적 측면에서 본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 『가사문학 장르론』, 다운샘, 2003.
- _____, 『<누항사>의 우의성과 그 의미』, 『개신어문연구』 28, 개신어문학, 2008.
- _____,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과 ‘우환’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64, 한민족어문학회, 2013.
- 박영주, 『강호가사에 형상화된 산수풍경과 생활풍정』, 『한국시가연구』 10, 한국시가학회, 2001, pp.304-305.
- 손대현, 『노계 박인로의 경제적 기반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시가연구』 29, 한국시가학회, 2010.
- 송양섭, 『조선시대 관권과 사족, 타협과 충돌』, 『역사비평』 65, 한국역사연구회, 2003, p.69.
- 신영명, 『17세기 강호시조에 나타난 ‘전원’과 ‘전가’의 형상』,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 _____, 『전가시조인가, 자영농시가인가?』, 『우리어문연구』 20, 우리어문학회, 2003, p.160.
- _____, 『시골로 내려온 서울,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 『시조학논총』 26, 한국시조학회, 2007, p.78.
- 안혜진, 『강호가사의 변모 과정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8.
- 우응순, 『박인로의 “안빈낙도”의식과 자연』,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 윤덕진, 『강호가사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88.
- 이상원, 『16세기 말~17세기 초 사회동향과 김득연의 시조』, 『어문논집』 31,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2, pp.153-160.
- _____, 『17세기 시가사의 시각』,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pp.268-269.
- 이승남, 『17세기 강호가사의 전환기적 서정』, 『우리어문연구』 28, 우리어문학회, 2007, pp.210-211.
- 이종문, 『노계 <영남가>의 찬양 대상 인물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59, 민족어문학회, 2009, p.300.
- _____, 『노계 박인로 문학의 창작 공간과 유적 관련 몇 가지 탐색』,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pp.194-196.
- 이형대, 『<오대어부가>와 처사적 삶의 내면 풍경』,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 임주탁, 『강호가사의 내면세계와 역사적 전개과정』, 『공사논문집』 31, 공군사관학교, 1992.
- 정재호, 『강호가사소고』,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1982.
- 정진영, 『16, 17세기 재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민족문화논총』 10,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p.91, pp.104-105.
- 최상은, 『노계가사의 창작기반과 문학적 지향』,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 최현재, 『노계가사에 나타난 장소성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34, 한국시가학회, 2013.
- 한창훈, 『17세기 향반계층과 시가의 강호 인식』, 『조선중기 시가와 자연』, 태학사, 2002.

2. 단행본

-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출판부, 2000.
- , 『산수미학탐구』, 제주대출판부, 2006.
- 오영교,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 혜안, 2001, p.59.
- 이민홍, 『사람과 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5.
- , 『조선 중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출판부, 1993.
- 이병휴, 『조선전기 사람과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0.
-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pp.44-109.
- 이태진, 『조선 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1990.
-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8, pp.570-571.
- 조윤제, 『한국시가가상(개정판)』, 을유문화사, 1954.
- 최이돈, 『조선중기 사람정치 구조 연구』, 일조각, 1997.
- 최진원,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7.
- ,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증보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6.
- 최현재, 『조선 중기 재지사족의 현실인식과 시가문학』, 선인, 2006, pp.30-47, pp.171-176.
- , 『조선 전기 사대부가사』, 문학동네, 2012.

Abstract

The Aspect of Natural awareness and its Meaning Appearing in
Park In-Ro's *Nogyega*

Choi, Hyun-Ja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rasp the status and significance which Park In-Ro's *Nogyega* occupied in the flow of nature gasa in the 17th century. Until now, most researchers were not interested in the work and did not properly interpret it. So in this paper, I carried out investigations into examining properly and interpreting it correctly. First, I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of nature gasa works and presented the periodical characteristics of them briefly. Then I compared *Nogyega* with the other nature gasa works of its contemporaries. Consequently I have verified that the aspect of natural awareness appearing in Park In-Ro's *Nogyega* is similar to the other nature gasa works.

This fact signifies that Park In-Ro, the writer of *Nogyega*, was not the downfall local Yangban but the Jaejisajok in his own right. Like the other Jaejisajok, he was also trying to bring honor to his own family and strengthen its position. This point is proven enough through his acts and new material that we could judge his circumstances from. Thus, this shows that his life and his works were also following the general tendency of the Jaejisajok in the 17th century.

Key Word : Park In-Ro, *Nogyega*, Jaejisajok(the local Yangban literati),
Nature Gasa, the 17th century

최현재

소속 :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소 :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전화번호 : 010-4150-5095

전자우편 : chj89@kunsan.ac.kr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